



제 목 :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

지은이 : 홍순대

발행처 : 인문서원

판 형 : 신국판 변형(153*210)

발행일 : 2020. 12. 21.

장 정 : 무선

쪽 수 : 340쪽

책 값 : 20,000원

ISBN : 979-11-86542-63-7 (03910)

그림이 전하는 조선 역사 아무도 말하지 않은 조선, 그리고 백성들 이야기!

모든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라 했던가.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 그 시대를 읽고 해석한다. 기록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예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먼저 그 시대를 알아야 한다. 이 책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은 조선이 개창하는 고려 말부터 조선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구한말까지의 역사를 크게 다섯 이야기로 나누어 그림을 통해 각각의 시대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림은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관련된 중요한 역사 사실을 살피고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각 시대가 남긴 그림들—초상화, 산수화, 풍속화 등—을 살펴보면 각 시대 역사적 사건은 물론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뒤에 숨은 진실을 펼쳐 보인다. 조선을 관통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노라면 조선 역사의 흐름은 물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란 무엇인지, 역사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의 민낯!

백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생생한 조선 역사가 펼쳐진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 그림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 번째 그림 이야기는, 미륵불 현신을 기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성계의 조선 개창에 관한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쇠락해가는 고려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금강산에서 사리갯춤구를 모시고 미륵불 현신을 빌었다. 미륵이 현신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축원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역시 미륵불 현신을 기원하고 그림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고려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성계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었던 정도전의 삶을 살펴본다.

두 번째 그림 이야기는, 권력욕에 눈 먼 수양대군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한 비해당 안평대군과 그가 아꼈던 화가, 안견의 이야기가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또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공신정치로 권력구조를 새롭게 다진 세조와 그의 으뜸 공신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한명회 이야기가 펼쳐진다. 안평이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림의 주인은 말이 없는데 「몽유도원도」는 우리에게 한 많은 그의 생애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끊임없이 들려준다.

세 번째 그림 이야기는, 조선후기에 발달한 풍속화를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풍속화의 대표화가 단원 김홍도는, 백성들의 삶을 단출하면서도 역동적인 필법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의 삶은 그림처럼 풍요롭지 못했다.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많아 먹고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반과 천민으로 구분되었던 사회구조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벼랑으로 끝없이 내몰렸다. 그런데도 권문세족들은 사치와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해원 신윤복의 그림은 이러한 양반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권문세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짚어본다.

네 번째 그림 이야기는, 「세한도」를 보면서 추사 김정희의 삶과 그의 시대정신을 살펴본다. 「세한도」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집 한 채와 나무 몇 그루가 전부인 그림이다. 쓸쓸함을 넘어 스산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에서 회한에 얽힌 김정희의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김정희는 왕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일찍이 청의 대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닦았고, 초서체와 금석문을 남긴 대학자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정희가 개인 수양에만 충실했던 학자였음을 밝혀 실사구시를 말했으나 실학자가 아니었으며 청과 교류했으나 대외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 간간한 조선의 선비일 뿐임을 지적한다. 이와 대비되는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의 삶은 이 같은 김정희의 한계를 더욱 뚜렷하게 알게 한다.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김정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림 이야기는, 구한말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조선 최후의 선비를 자처하며 자결한 매천 황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초상화가 말해 주듯 황현은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매로 구한말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 바로 『매천야록』이다. 구한말은 일제와 청나라, 러시아 등이 조선 침략에 혈안이 된

시기였다. 뜻있는 지식인들은 외세로부터 독립하고자 갖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독립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해 오히려 독립은 멀어져 갔고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무능한 지배층들을 심판하고자 분연히 들고일어났다. 그런 백성들을 고종과 지배층들은 외세를 불러들이면서까지 잔혹하게 살육했다. 구한말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며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와 달리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몸소 실천한 매천을 통해 오늘날 지식인들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이처럼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는 그림을 통해 조선 개창부터 구한말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까지 조선 역사의 큰 권력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관련된 역사 사실들을 촘촘하게 엮어 관련 사실들을 연관지어 보게 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와 지배층의 기록이라고 한다. 소외된 약자와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또 이들의 이야기는 잘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은 이런 문헌 기록들과 달리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하지만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책은 그림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조선의 역사, 정확히는 조선 백성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지배층의 죽고 죽이는 권력다툼에 짓밟히면서도 묵묵히 역사를 끌어온 원동력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백성의 눈으로 역사를 읽고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 『그림 속에 숨겨진 조선 역사』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지은이 소개 /

홍순대

196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재미로 보기 시작한 역사책들은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흔적이다. 역사의 흔적을 쉽고 재미있게 우리들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각으로 풀어낸 글들이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역사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공저로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본문 속으로 /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목숨을 건 수를 둔 것은 기존 고려왕조 하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함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백성을 돌아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국고는 텅 비어 관리들에게 녹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부처 먹을 땅은 고사하고 수탈만 당하고 있었다. 맹자는 민심을 잃으면 백성을 잃고 천하를 잃는다고 했다. 고려말 상황이 꼭 그랬다. - 본문 중에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주위에 모여드는 문인들을 경계했다. 어린 단종의 주위를 안평과 교류하는 문인

들이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평이 불계의 음모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당대 문인들, 정치 권력자들과 교우했으나 권력찬탈을 위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었다. 도화원기에서 드러나듯이 도원은 은둔자의 세상이요, 세속과 다른 고요하고 적막한 세상이었다. 세상처럼 번잡하지 않으며 권력 암투가 없는 세상이었다. - 본문 중에서

김홍도가 활동하던 조선후기는 특정 계층이 토지를 독차지하며 소유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대부분의 토지는 대지주가 소유했다. 경작 활동은 대지주의 노비나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 몫이었다. 이 그림은 이런 조선후기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홍도는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림에 담아 표현했다. - 본문 중에서

추사는 학문 연마에는 철저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했다. 세도정치 세력과 정책적인 논쟁도 없었으며 각을 세운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개혁을 위한 몸부림도 없었다. 이는 다산 정약용과 비교해볼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산은 경제치용과 이용후생의 실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추사는 학문함에 있어서는 실사구시를 강조했으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자학을 신봉하며 예론禮論과 경론經論에 매몰되어 있던 다른 지식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 본문 중에서

매천은 절명하기 전에 절명시絶命詩 네 수를 남겼다. 시에는 나라를 잃은 선비의 인간적인 고뇌와 나라를 생각하는 고뇌가 드러나 있다. 글을 배우고 닦아온 선비로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러나 한탄만 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송나라의 윤곡尹穀이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자결한 것과, 진동陳東이 임금에게 직언을 했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도 윤곡과 진동처럼 죽음으로써 선비의 기개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본문 중에서

차례 /

작가의 말

1 고려인가 조선인가

- 미륵불 현신을 기원하며
-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 불교의 나라 고려
- 권력에 무너진 토지제도
- 사패를 개혁하라!
- 공민왕과 부원세력의 저항
- 개혁의 날은 다가오고

- 삼봉이 그린 세상, 조선

2 풍유도원도의 눈물

- 도화원기
- 안평대군이 꿈꾼 세상
- 소용돌이는 다가오고
- 안건의 붓끝에서
- 난의 세월 수양대군
- 끝없는 혼란의 시작
- 수양이 양산한 공신과 정치
- 비운의 비해당과 기린교

3 풍속화에서 백성을 보다

- 풍속화는 기록화
- 타작 그림 속 토지소유제
- 황폐한 토지와 전세제도
- 백성들의 삶
- 양반 사대부, 경화사족의 삶
- 토지 집중화는 양극화로

4 세한도, 풍상의 세월

- 그대는 어찌 이리하는가?
- 추사 김정희는 천재인가?
- 세도정치의 한가운데에서
- 정치보다 정쟁
- 돌아올 수 없는 유배길
- 민란, 세도정치의 극복
- 다산과 추사의 유배
- 인간 김정희

5 조선 최후의 선비, 매천

- 500년 선비는 어디에 있는가?
- 달아라! 그리고 막아라!
- 침략의 첫걸음
- 개화와 개혁 그리고 그 한계

- 지도층의 부패
 - 국운은 기울고
 - 고종의 나라, 백성의 나라
 - 민중의 저항
-
- 그림을 덮으며

참고문헌